



14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내 부지에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착공식이 열린 가운데, 송하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공사 본격

총사업비 328억 투입 복합문화공간 조성… 2027년 완공 목표

서예전시·체험·교육까지… 서예 진흥 위한 중추역할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14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돌입했다.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내 부지에 착공한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총사업비 328억 원이 투입되는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로, 전주시 덕진구에 부지면적 1만2,374㎡, 연면적 7,674㎡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된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완공 후에는 서예의 전시와 체험, 그리고 교육까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서예문화의 세계화를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시설은 서예작품 전시실과 체험실, 서예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산업창업지원실 등으로 구성되며, 전시·교육·창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자치

도는 이 시설이 서예 진흥과 세계적인 서예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예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함께 추진돼 서예문화의 저변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축 설계는 '전통 한지의 켜켜이 쌓인 형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주

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으며, 자연친화적인 배치와 전통미를 강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서예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서예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북의 서예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을 중심으로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며 "서예를 새로운 K-컬처로 육성하고,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세계 서예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제8회 전주독서대전, 9월 5~7일 개최

‘책을 넘기는 순간’

전주한벽문화관·완판본문화관 일원서

시민 체험형 전시·독서토론 등 선보여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독서문화축제인 '제8회 전주독서대전'이 '넘기는 순간'을 주제로 펼쳐진다. 전주시는 전주독서대전 추진협의체 및 실무기획단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전주독서대전의 주제를 '책'과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 전주독서대전만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은 '넘기는 순간'으로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주제에는 전주독서대전이 지켜 온 정체성을 바탕으로 보다 차별성 있는 축제를 선보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시는 올해 전주독서대전에서 축제의 본질인 책에 집중해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시민들을 만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책장을 넘기며 새로운 기대와 세계를 만나듯 다 함께 변화와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는 소망을 담아 냈다. 이와 관련 '제8회 전주독서대전'은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강연과 공연, 경연, 체험, 북마켓, 체험 부스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넘기는 순간'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시민 체험형 전시와 시민공모전, 합한 독서토론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단독으로 진행돼 관람객의 집중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권희성 기자



제8회 전주독서대전 포스터. (사진=전주시청 제공)

여기에 올해 축제에는 배우이자 작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차인표 작가를 비롯해 고은지 인스타툰 작가, 법의학자 이호 교수, 최은영 소설가, 유희경 시인, 유강희 시인, '전주 올해의 책'에 선정된 강경수·김근혜·이희영·김소영 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강연자가 참여해 독자들과 소통하는 장을 연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올해는 전주독서대전의 정체성을 이어가면서도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축제를 지향하며 책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겠다"면서 "독서의 달인 9월에 책의 도시다운 풍경을 활짝 펼칠 전주독서대전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임실=진홍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공모에 임실군 '플레이랜드 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은 공모시행 첫해인 작년 장수군이 선정된 데 이어 선정규모가 대폭 감소된 올해에도 전국 5개 선정 시·도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임실 플레이랜드 플랫폼 구축, 국토부 민관상생 공모 선정

총 135억원 투입… 실외 놀이테마파크 등 관광 인프라 조성

임실군은 놀이테마파크 전문기업인 (주)드림랜드·(주)드림레저와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함께 손을 잡고

공모를 준비했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 50억원을 확보, 2028년까지 도비 10억원, 군비 40억원, 민자 35억

원 등 총 1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놀이기구를 설치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실외 놀이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인근에는 자연친화적인 트리

하우스와 글램핑장 조성을 통해 치즈마을뿐만 아니라 임실을 찾는 방문객에게 양질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상설 공연과 캐릭터 퍼레이드·페스티벌 이벤트와 같은 풍부한 행사 콘텐츠도 담아 나갈 계획이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기존의 일방적인 사업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민

간이 직접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수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생활인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생태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임실=진홍명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

참여로 지키는 소중한 권리

선거일 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오후 8시

사전투표 5월 29일(목)~30일(금)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후보자 정보 확인
info.nec.go.kr

정책 공약 확인
policy.nec.go.kr

후보자 토론 다시보기
debates.go.kr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